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대연1동 새마을문고 대연1동분회는 제3회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해 도서 우수 대출자 7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대연3동 새마을문고 대연3동분회는 '새마을 작은도서관 독서왕 시상식'을 개최해 독서왕 11명, 독후감상 2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대연4동 대연6구역재개발조합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300만원을 후원해 복지사각지대 100세대에 전달했다.



대연5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2월 24일에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세대 의 베풀기를 도배하고 전등을 수리하는등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



대연6동 주민자치위원회, 적십자 봉사회(신문희 고문), 제일집, 대연교회에서 쌀 10kg 90포를 기증받아 설맞이 상품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용호1동 12월 19일 우리동네 마을살림터 발대식을 갖고 모든 주민이 행복하는 따뜻한 용호1동을 만들기 위한 고독사 예방활동을 펼친다.



용호2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급단체, 늘빛교회, 휴마트, 현대살상회 후원으로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를 개최했다.



용호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동불편 장애인가구 대청소 및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용호1동의 '만능해결사'

박두춘 주민자치위원장 30년째 지역 위해 봉사

2019년 9월 어느 날, 용호동 버스정류소 근처 어느 건물 합석 지붕위에서 한 남자가 지붕을 뜯어내는 일에 열심이다.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에 철거 예정이던 무허가 건물의 지붕이 팔럭 팔럭 벗겨져 날아갈 듯 위태로웠다. 주민들의 걱정에 동 직원들은 건물주를 찾아갔으나, 만만찮은 철거비용에 건물주도 섣뜻 지붕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한 사나이가 성큼 지붕위에 올라가 낡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자칫 인명 피해까지도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누구도 섣뜻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푼다. 푼다. 푼다. 해치우는 사람, 박두춘 용호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났다. 앉자

마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칭찬팔레트가 이어졌다. 쑥스러운 듯 앉아있던 그는 용호1동에서 24년간 통장 일을 하면서 겪었던 사연들, 새마을 지도자, 장학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봉사단체에서 활동해온 일들을 기억나는대로 차분히 들려주었다.

한번은 어느 연립주택 화단에 있는 30년 된 대추나무 뿌리가 이웃집 구들장까지 뻗어 민원이 생긴 적이 있었다. 나무를 심었다는 할아버지는 비용 탓에 나무를 자르지도 못하고, 동에서는 사유지라 나무를 여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톱을 주시오"하며 등장한 박 위원장은 막걸리 한잔에 고사까지 지내며 30년 된 대추나무를 좋은 곳으

로 보내주어 대추나무 주인과 이웃집 사람 모두 웃으며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다.

오륙도 트램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작년 국내1호 트램도시 선정을 축하하는 '트램길 먼저'



한글교실 어르신들의 글로 전하는 마음

대연5동 한글교실은 한글에 자신이 없거나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해 십년 넘게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17명의 어르신들이 배움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도 글로 전하면 마음에 다르게 다가온다.

이제 한글을 배우지 1년, 길게는 2년이 된 어르신들이 한자 한자, 포박 포박 글로 써내려간 투박하면서도 진솔한 마음들을 소개한다.

미국에 간지도 벌써 삼십년이 되었구나 어린 자식을 데리고 떠나면 외국 땅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며 살았겠지만, 지금부터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가. 조금 있으면 손자도 보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와 재미나게 살고 있어라 내가 건강하면 또 만날 날이 있겠지. 그때까지 잘 살아가, 엄마가. (오상호 어르신)

세월이 흘러 벌써 십년이 되었구나.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우리가 어릴 때 소꿉장난도 하고 산에 가서 산나물도 캐서 점심도 함께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지. 그때가 그리구나. 고향 산촌에는 예쁜 단풍잎이 곱게 물이 들었다가 지금쯤 다 떨어졌겠지. 편지를 쓰고 있노라니 가슴이 울렁거리며 서글퍼지네. 시간을 낼 테니 우리 꼭 만나서 서로 이야기



하며 웃어보자. 그럼 만날 때까지 잘 있어 안녕! 점오가. (송점오 어르신)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어느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네요! 추운 날씨에도 선생님께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한자라도 더 가르쳐 주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이 고맙고 저도 더 배우려고 애를 쓰고 듣고 있어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항상 웃는 얼굴로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고맙고 감사하고... 선생님과 오래오래 배우고 싶습니다. 고마운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김복순 어르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말선입니다. 선생님을 만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었네요. 만나고부터 수업 한번 빠지지 않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강말선 어르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팔순이 넘은 우리들을 가르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부하고 시험칠 때 100점을 받을 때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언니 아우들과 함께 공부할 배울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처음 써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유귀희 어르신)

이웃돕기 소식

자라나는 꿈나무 위한 장학 소식

○...대연6동장학회는 지난 3일 관내 중·고등학생 2명에게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우암동 우암장학회는 지난 20일 저소득층 고등학생과 대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감만2동 장학회는 지난 17일 고교생 9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1명에게 40만원 총 4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부산중앙고 영(嶺)장학회는 남구 관내 저소득 중학생 6명에게 사랑의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문현2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16일 관내 저소득 중고등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나눔활동

○...대연드림어린이집 원아들은 12월 24일 고사리 손으로 라면 205개를 모아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우수2 체육관 어린이 회원들은 12월 27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년 동안 모은 라면 529봉을 대연3동에 전달



했다. ○...용호2동 한빛태권도는 수련생과 가족들이 정성껏 모은 라면 784개(4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연포태권도는 12월 27일 수련생과 가족의 기부로 사랑의 마음트리 만들기 행사를 진행해 햇반 347개를 대연6동에 기탁해 취약계층 37세대에 전달되었다.

○...대연6동 소재 한누리어린이집 5세 원아들과 학부모는 아나바다 활동 수익금 1백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명문글로벌유치원은 설을 맞아 문현1동에 라면 4박스, 떡국떡 45봉지를 기탁했다.

작은 나눔 풍성한 명절

○...BNK금융그룹에서는 남구에 설 명절을 맞아 '2020년 설맞이 나눔사업'으로 전통시장상품권 2,25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용당동 새마을부녀회는 1월 17일 관내 경로당 4곳을 방문해 설 명절 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용당분동발전협의회에서 후원한 40만원 상당의 떡국, 과일 등을 전달했다.

○...국제 로타리 3661지구 오륙도 로타리 클럽은 1월 15일 쌀 18포(50만원 상당)를 대연3동에 기탁했다.

○...부영가정비는 1월 9일 대연4동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사)나눔재단은 13일 문현1동, 문현3동에 각각 라면 50박스과 떡국떡 50봉을 전달했다.

○...대연성결교회는 온누리 상품권 105매(105만원), 백미10kg 40포를 대연6동에 기부해 취약계층 61세대에 전달되었다.

○...건일중앙은 설을 앞두고 300만원



상당 부식세트를 우암동의 어려운 이웃 117세대에 전달했다.

○...용호3동 각급 단체 전직 회장들의 모임인 일념회는 1월 15일 관내 경로당 2곳에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용호3동은 단체장협의회, 용호남교회, 늘빛교회, 휴앤디(용호점), 모두마트(용호점) 후원으로 희망나눔 행복다하기 상품전달식을 개최했다.

걷기 축제'에 참가했던 때를 떠올리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트램이 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며 몽글하는 감동을 느꼈다"고 말한 그는 트램과 연계해서 전국에 하나뿐인 국군 문서보관소, 포진지, 동생말을 묶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기대 동백꽃축제를 열고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예쁨'이 만발하는 용리단길까지 관광 콘텐츠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강조하기도 했다.

매일 동네를 돌아보고 행정복지센터에 출근하는 박 위원장 덕분에 직원 한명, 비상출동 차량 한대를 더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든든하다는 동장님의 말씀에 "용호1동은 워낙 인구가 많다보니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며,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지요"라고 말하는 그. 직원들은 그와 헤어질 때 "내일 봐요"라고 인사를 한다.

30여 년 전 통장을 자원했던 젊은이는 이제 용호1동이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것에 힘을 쓰는 중년이 되었다. 추억을 더듬듯 이야기하는 그의 표정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해작사 이발 군무원

아름다운 재능 기부



매월 중순경이 되면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으로 봄나다. 매월 해군작전사령부(이후 해작사) 영내에 있는 이발소 군무원 4명이 방문해 동네 어르신들의 이발을 해드리기 때문이다. 해작사에서 근무하는 이발소 군무원들은 2008년 5월부터 용호1동과 인연을 맺어 꾸준히 봉사를 해 오고 있으며, 매월 동네 어르신 50분 정도를 만나다 보니 이제는 안부도 여쭙고 말벗도 되는 어르신들의 친근한 이웃이 되었다.

67년 전통 감만1동 쌍희반점

어르신 300명 자장면 대접

1월 12일(일) 감만1동에 위치한 쌍희반점은 어르신 300분에게 자장면을 무료로 대접해 67년 동안 식당을 이용해 준 지역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복더하기 상품 전달식을 가졌다.

○...문현2동 금융단지주유소는 설을 맞아

쌀10kg 150포(36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용호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17일 주민자치위원회, 늘빛교회, 휴마트 등의 후원으로 받은 쌀 178포(10kg)를 저소득가정 178세대에 전달했다.

○...우암동은 제19회 사랑의 쌀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복지사각지대 및 다문화 가정 등 265세대에 7,155천원 상당의 쌀을 지원했다.

○...용호4동 새마을부녀회는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를 개최해 어려운 이웃 20세대에 떡국 떡 40kg를 전달했다.

○...용호3동은 단체장협의회, 용호남교회, 늘빛교회, 휴앤디(용호점), 모두마트(용호점) 후원으로 희망나눔 행복다하기 상품전달식을 개최했다.

○...대연1동은 설 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를 개최해 각급 단체, 업체 및 개인 후원으로 쌀 10kg 218포(5,660천원 상당)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